

“Alois Riehl의 Kant 解釋”

鄭 鎮
(哲學科 教授)

目 次

- | | |
|---------------|-------------------|
| I. 緒 言 | IV. 純粹理性批判의 方法 |
| II. 批判主義의 概念 | V. 純粹理性批判의 基礎와 構成 |
| III. 理性批判의 問題 | VI. 結 語 |

I

批判主義의 歷史的 意味를 極히 簡略하게 말한다면, Kant가 先驗의 方法에 의해서 모든 價値있는 태도의 可能性의 制約을 證明함으로써 哲學의 概念을 모범적인 方式으로 敘述했다고 規定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點에서 Kant는 哲學에 대해서, Galilei가 物理學에 대해서 했던 것과 똑 같은 것을 했다고도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Kant는 哲學의 對象을 規定하고 哲學의 方法을 發展시켰다. 認識이 特定科學의 概念을 滿足시키는 限, 즉 認識이 특정 科學의 概念을 통해서 指示된 對象領域과 關係하고, 그리고 그 對象領域에 의해서 제공되는 方法을 준수하는 限 學的 價値를 가지기 때문에, Kant 以來로 어떠한 哲學의 體系 家라 할지라도 自己의 學說이 批判主義에 의해서 證明된 哲學의 개념을 만족시키는지 어떤 지, 또 만족시킨다면 어떻게 만족시키는지에 關係해서 설명하는 일이 暗黙裡에 要求되어 왔다. 만일에 그가 그 證明된 哲學의 개념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그는 그 根據를 밝히지 않으면 안된다. 다시 말하면 自己哲學의 다른 概念을 證明해야 한다. 더우기 Kant의 規定들 중에서 不滿足스러운 것을 立證하는 對決에서 證明하지 않으면 안된다. 依리하여 Kant의 規定은 定數의 가치를 얻었으며, 講述되는 體系的 哲學的 學說들의 變數는 그 定數와 관련 되어야 했고, 그리고 定數에 따라 判定되어야 했다.

그러나 Kant의 功績은 또 그 이상의 結果를 獲었다. 哲學의 學的 概念의 確立과 함께 認識領域의 정돈된 對象이 획득되었으며, 사실적으로 哲學적으로 妥當한 敎說과 그렇지 못한 것과를 分辨할 尺度로서의 批判主義의 功績에 의해서 認識分野가 學的 課程으로서 認定 되었으며, 認識論의 成立과 함께 存在의 領域이 學的 理念下에 속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現象이 종전에 가졌던, 단적으로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실한 所與性的 性格을 상실하게 되었다. 現象자체에서 드러나는 問題解決에서나, 問題자체의 파악과 公式化에서 研究者 자

신의 體系的 立場이 重視되었으며, 이와 함께 다른 體系的 立場의 評價를 위한 定數로 여겨왔던 ‘批判’의 規定이 다시 再論될 수 있게 되고, Kant의 ‘批判’이라는 著述의 歷史性이 注目되기 시작했으며, Kant의 著述 자체도 단적으로 의문 없이 확실한 것으로 시인하는 일이 곤란하게 되었다. Kant 著作의 생생한 描寫와 細部構成을 위해서도 原理的인 前提나 標準授與的인 것이 없고, 解釋의 方向의 設定은 그때 그때의 解釋家의 體系的 立場에서 나온다. Kant研究의 方法에서도 이것은 決定的인 結果를 가져온다. 定數로서의, 즉 哲學의 批判概念으로서의 常數가 다른 變項에 의해서 媒介되고 그래서 그 자신도 變項으로 된 것이다. 批判主義를 共通의 客觀的인 標準的인 基準으로서 査定함으로써 餘他的 著述家들의 體系的 位置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 希望이 허물어진다. 元來 批判主義라는 것은 그런 것을 形成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H. Cohen의 Kant 해석과 M. Heidegger의 Kant 해석이 本質的으로 다르다. ‘批判’에 대해 그때마다 다르게 관계함으로써 兩解釋家에서 贊成 내지는 批判이 대응하게 된다. 결국 各者는 自己가 Kant를 이해하는 方式에 따라, 즉 各者가 Kant에서 이해하는 것을 통해서, 현저한 방식으로 自己자신의 立場의 特질을 일탄 드러낸다. 그리고 이때에 그가 Kant를 歷史的으로 正當하게 이해했느냐 았했느냐 하는 물음이 우선은 주의되지 않을 수도 있다.

II

A. Riehl은 “哲學的 批判主義의 歷史”의 테두리 내에서 Kant의 ‘批判’에 대해 解釋한다. 이 解釋이 그의 主著 “哲學的 批判主義”¹⁾의 第一卷을 이루고 있다. 이 主著의 關心, 따라서 Riehl의 支配的 關心은, H. Rickert의 말에 따르면, 批判的 思想의 根本意味를 實證科學의 可能性을 위해 形成해나가는 것이다.²⁾ 그러나 ‘批判’에 대한 Riehl의 價値評價에 따르면 Kant의 이 著作은 ‘經驗의 定礎’를 수행한다는 點에서 存立한다.

Riehl에 의하면 Locke, Hume 그리고 Kant는 哲學的 批判主義의 代表들이고, 이들 중에서 Kant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Locke와 Hume은 단지 그들의 學說이 Kant의 學說의 歷史的 前提를 形成한다는 理由에서만³⁾ 評價된다. 그러나 批判主義는 하나의 哲學的 方向이고, “이 方向은 形而上學에 反對하고, 오히려 形而上學에 對立하는 것을 自負하고 있으며, 또 동시에 獨自性을 지닌다.”⁴⁾ 批判的 學說의 共通的인 것을 “傳統의 形而上學에 대한 對立에서 보는 것”⁵⁾이다. 단지 이러한 否定的 契機를 特징으로 하는 方向은 分明히 批判

1) Alois Riehl, Der Philosophische Kritizismus Bd. 1. der Geschichte des Philosophischen Kritizismus. 3 Aufl. 1924. Leipzig Körner.

2) Vgl. H. Rickert, “Alois Riehl”(Logos, Vol. 13 (1924—1925), S. 168.

3) Vgl. Alois Riehl. a.a.O.S. 17.

4) a.a.O.S. 1.

5) a.a.O.S. 5.

主義의 代表者들의 意味를 바르게 평가할 尺度를 놓치고 있다. Riehl은 실에 있어서 이러한 尺度를 그의 著作의 定礎를 통해서 이미 전제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批判哲學은 形而上學에 對立한다는 그의 性格規定을 넘어서 곧 形而上學과 親近한 規定을 얻게 된다. 즉 批判哲學이 시작하는 바로 "그 時點에서 비로소 認識의 根源, 確實性, 範圍의 탐구가 事物들 자체의 탐구에 原則적으로 先行되었다고"⁶⁾ 한다. 이로써 확실히 한 肯定的 계기가, 실현되지 않으면 안될 制約으로서 획득되고, 批判哲學에 관한 論議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우기 이 制約은 다소 만족스러운 方式으로 실현될 수 있다. 즉 Locke에 의한 表象의 發生의 心理學的 說明이 表象들의 對象의 妥當에 관한 물음에 대해서 適正하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 Locke는 難破했다. Hume도 마찬가지다. Hume은 經驗의 근거를 다시 經驗으로만 인정했기 때문에, 마침내 經驗의 無根據性을 결과하게 되고, 또 이와 함께 懷疑가 불가피했다. 이리하여 마침내 Kant가 비로소 經驗을 客觀的 認識으로서 인정했다. 그런데 Kant는 經驗의 根據를 증명함으로써 客觀的 認識을 인정했다. 經驗의 根據들이 다시 經驗 안에서 찾아질 수는 없다. 여기서 비로소 Kant思想의 展開는 그 目標에 도달한다. 檢證이라는 의미의 '批判', 그리고 定礎라고도 하는 '批判'이 수행된다. 批判의 成果의 하나는, 批判이 오직 經驗(Empirie)에 대해서만 수행될 수 있다고 하는 洞察, 즉 모든 形而上學의 定礎不可能性에 대한 洞察이다. 이로써 哲學的 批判主義의 消極的 性格規定은 두째번 대목에서 뚜렷이 드러내질 積極的 계기를 통해서 그의 確證을 얻는다. 즉 두 規定이 통합된다.

그러나 이 두 規定은 合致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不運이다. 왜냐하면 이 敘述이 Kant를 不可避하게 저 消極的인 의미의 한 批判主義로 확정하기 때문이다. 우선 이 陳述이 積極的 의미의 批判哲學으로 표지하는 檢證의 계기를, 여러 理由에 의해서 Kant學說의 獨自的이고 '合理主義的'成分으로서 批判主義와는 다르게 並行的으로 인도한다. 다시 말하면 Kant는 "獨斷的 合理主義를 그의 批判的 의미의 合理主義로 변경했다."⁷⁾ 그리고 나서 歷史적으로 Kant로 인도하는 편에는 消極的 의미의 批判主義의 契機가 전적으로 지배하게 된다. Locke와 Hume의 學說에 獻呈된 Riehl의 研究는, 合理主義와, 合理主義의 Kant에 대한 影響에 관한 章의 約 五倍의 범위에 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批判主義와 合理主義는 동등한 主流로서 표지되고, "이것은 Kant의 批判哲學으로 흘러드러가야 했다."⁸⁾ 그러나 이로 인해서 한 批判主義라는 現象의 學이 주어지고, 이 批判主義에는 바로 그 消極的 표지만이 적합하다. 그리고 理性批判의 歷史의 陳述자체도, 그 著者 자신의 陳述과 같이, 批判主義의 消極的 표지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다. 純粹理性으로부터의 認識의 批判의 "計劃은 超感性的 事物들의 知識, 그리고 이와 함께 獨斷的 形而上學을"⁹⁾ 除去할 의도에 의

6) a.a.O.S. 2.

7) a.a.O.S. 303.

8) a.a.O.S. 245.

9) a.a.O.S. 405.

해서 철저히 主導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經驗의 定礎라고 하는 이 目的을 위한 手段만을 形成해야 한다.”⁹⁾

확실히 뒷 章들에서 體系的 關心이 강하게 重要視되면 될수록, 점점 더 ‘經驗의 定礎’라는 Riehl의 論題가 주는 歷史的 인관내의 沈沒에서 獨立的으로 되면 될수록, 批判主義의 像에서 積極的 契機가 점점 더 前面으로 드러난다. 처음에는 分明히 批判主義와는 區別되는 定礎의 合理主義가 批判主義의 개념안에 받아들여진다. 또 批判主義의 概念은 階에 따라서는 ‘批判’의 題目의 引用으로 쓰이고, 이 ‘批判’의 제목에서 純粹認識의 妥當성이 告知되고 있다.¹⁰⁾ 그러나 ‘kritisch’와 ‘transzendental’을 同意語로서 표지하는 것은, 兩者중의 前者(kritisch)의 積極的 의미를 表現한다.¹¹⁾ Riehl이 理性批判의 歷史的으로 確言된 消極的 的 傾向에 對立해서, 經驗의 定礎를 “우리가 오늘날 重視하는”¹²⁾ 것으로서 특별히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때, 이 轉回는 Kant의 認識論에 대해 歷史的 準備의 不利한 影響을 주었을 뿐이고 더구나 補償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理性批判의 積極的 成果는 한 主觀的 觀點下에서 引導되고 있다. 이 主觀的 觀點은, 이것을 더 이상의 계속적인 탐구가 正當化하든, 또는 폐기하든, 여하튼 間に 여기서는 說得力이 없다.

III

“理性批判의 문제는 認識에 대한 문제이다”,¹³⁾ 그러나 認識의 문제는 그 對答으로서 어떤 完全한 “人間的 認識理論”¹⁴⁾을 要求하는 것이 아니다. 이 認識論의 課題는 先天的 認識으로 制限된다. 많은 經驗적인 것과 感性的인 것은 考察범위 밖에 머문다. 全深求를 위한 표준적인 公式化는, “어떻게 先天的 綜合判斷이 가능한가?”라는 命題로 集約된다. 더우기 可能性의 문제는, 可能하게 될 現實性을 目標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判斷들의 正當性에 妥當性을 목표로 한다.¹⁵⁾

批判의 문제가 인식에 있고 存在에 관한 것이 아니지만, 客觀的으로 타당하는 인식의 地位를 要求하는 先天的 綜合判斷의 存在는 批判的 關心事의 의미를 비로소 지적한다.¹⁶⁾ 數學과 自然科學의 原理的 部分과 形而上學에는 이러한 判斷이 成立한다. 先天的 綜合判斷의 可能性에 대한 문제의 해결은 그러므로 동시에 科學의 可能性에 관해서도 결정한다. 이로

10) Vgl. a.a.O.S. 393.

11) Vgl. a.a.O.S. 250.

12) a.a.O.S. 405.

13) a.a.O.S. 570.

14) a.a.O.S. 408.

15) Vgl. a.a.O.S. 426.

16) Vgl. a.a.O.S. 430ff.

부터 明示되는 것은, 實在的 또는 推定上의 學에 대한 指示는 단지 이 물음의 重要性을 설명할 뿐이라는 것이다. 이리하여 上述한 學科들의 基礎를 確固하게 하는 일이 要求된다. 그래서 形而上學에서의 모든 研究가 中止되어야 할뿐 아니라, 어떠한 形而上學的 論議도, “形而上學과 같은 學이 도대체 가능한지 어떤지”,¹⁷⁾ 결정될 때까지 親熟해져서는 안된다. 이에 대해 數學과 自然科學은 可能性의 問題해결을 위한 法廷으로서 形而上學과는 區別된다. Kant는 “어디에서도 數學의 客觀的 妥當性을 全제하지 않았으며”,¹⁸⁾ 純粹 自然科學의 客觀적 타당성도 全제하지 않았다.”¹⁹⁾ 이 認識의 客觀的 妥當性의 正當化는 오히려 그의 인식론의 積極的 部分의 課題를 形成한다.”²⁰⁾

Riehl은 中心問題의 解決을 進술하기 前에, 그는 批判의 問題자체를 先天的 綜合에 관한 節에서 설명한다. 여기서 그는 ‘批判’의 緒論안에 있는 問題의 規定에 分明히 앞질러 追溯하면서 概念의 分析論의 첫째의 主要 部分으로부터의 몇몇 重要 思想을 引用한다. 즉 그는 批判의 前提로서 認識을 引導한다. Kant자신은 認識을 批判의 문제에 있어서 本來的 研究의 과정에서 비로소 公式化하고, 더우기 인식을 전제로서 특징지우지는 않는다. 解釋家에서 前提들이 인식으로서 생겨나온다. 그리고 Kant는 認識問題의 研究成就를 先天的 綜合 判斷의 문제에 준 것이다.

이 前提들은 한편에는 論理的 性格을 가지며, 다른 한편에서는 認識論의 性格을 가진다. 論理的 전제들은 判斷의 개념과 관계한다. 認識論의 前提들은 分析的인 것과 綜合的인 것의 契機들에 관계한다. 그러나 인식론적 전제들의 의미는 先驗的 分析論에서 비로소 展開되는 論理的 前提들에 의거해서 明白하게 드러난다. 그러나 이제 先驗的 感性論의 課題는 인식론적 전제들에 의거해서만 公式化 된다. 그래서 先天的 綜合判斷의 문제에서 일단 ‘批判’의 支配的인 물음이 인식된 것이라고 한다면, 先驗的 分析論에서 言表되고, 또 Riehl에 의해 批判의 문제의 해명을 위해 招致된 認識이 前提들로서 立證된다. 이것을 해명하기 위해서는 이 問題를 相異한 部分들로 나누어서 해명하는 것이 必要하다.

1. 先天的 綜合判斷의 可能性의 물음의 의미는 모든 心理學的인 해결시도를 本來부터 중요하지 않는 것으로서 排除한다. “判斷의 形式과 의미에 관해서는 一切의 心理學的인 制約이 除外된다……心理學的 遂行을 論理學이 敎示한다.”²¹⁾ 범주의 先驗的 演繹에서의 모든 判斷의 論理的 形式에 관한 節의 마지막 부분에서 Riehl은, 두 개념 사이의 한 關係의 表現으로서의 判斷의 誤解的인 前 Kant的인 파악을 비판한다. ‘論理的 悟性使用 一般에 관하여’라는 批判의 節에서는 이에 반해, 判斷에서의 概念에 그 機能을, 물론 다른 方式에서

17) Kant, Prolegomena S. 255.

18) Riehl, a.a.O.S. 431.

19) Vgl. a.a.O.S. 433.

20) a.a.O.S. 427.

21) a.a.O.S. 427.

이긴 하지만, 승인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 “述語는 判斷의 固有한 原理이고, 概念은 可能적 判斷들의 述語들이다.”²²⁾ 이節은 또 이미 先行的인, Riehl에 의해서 引用된 判斷의 定義, 즉 “따라서 모든 判斷들은 우리의 表象들 사이의 統一의 機能이라”²³⁾는 定義를 준다. 判斷의 形式的 種類의 區別은, 表象들의 統一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그 形式을 참조케 한다. 이 定義가 判斷에 本質的인 客觀에 대한 關係를 목표하는 限, 이 定義는 잠정적이다. 傳承된 學說의 批判도 包含하는 이節에서 Kant는 이 關係도 고려에 넣고 있다. 思维의 統一을 위한 表象들의 結合은, 한 判斷이 現存하지 않더라도, 이미 形式的으로 正當하게 수행된다. 客觀的인 認識을 수행하기 위해 表象들의 結合이 발생하는 경우에 비로소 그 結合이 判斷이다. Kant가 생각했던 “判斷이라는 것은, 주어진 認識을 統覺의 客觀的인 統一로 招來하는 양식 이외의 다른 것이 아니다.”²⁴⁾

2. 判斷의 定義가 論理學의 職分이라면, 分析判斷과 綜合判斷의 區別에 관한 說明은 認識論의 課題이다. 이런 區別은 表象들을 統一로 結合하는 根據의 區別에 의존한다.

이미 判斷의 定義에서와 같이 여기서도 批判의 緒論에서 주어져 있고 있는 說明이 先取되고 있다. 이 說明은 分析判斷을, 그 안에서 主語와 述語의 結合이 同一性에 의거해서 思维되는 그러한 것으로서 規定한다. 이에 反해 綜合判斷에서는, 述語에 도달하기 위해서 主語概念을 넘어서 가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이로써 언제나 다시 드러나는 誤解的인 異論이 일어나기 쉽다. 다시 말하면 標識된 區別이 流動的이고, 判斷者의 主觀的인 知識상태의 여하에 따라 그때마다 個別的인 判斷들에서 轉位되기 쉽다는 異論이다. 이에 대해서 Kant는 論理學에 의한 判斷의 規定에 의거해서 비로소 다음의 方式으로 설명할 수 있었다, 즉 上述한 規準을 客觀的인 것으로서 증명했고, 그리고 그 異論이 제기되기 前에 그 異論으로부터 모든 힘을 빼앗았던, 그런 方式으로 說明할 수 있었다. “Kant의 區別에 있어서 문제되는 것은 主觀的인 教養이 아니라, 오직 唯一하게 判斷들의 客觀的인 定礎가 문제이다.”²⁵⁾ 그래서 綜合的인 判斷은 결코 分析的인 判斷으로 될 수 없다. 이를테면 判斷이 判斷者에 의해서 一回的인 形成 후에, 主語가 다시 形成되지 않더라도, 일단 획득된 인식에 의거해서 判斷者에 대한 述語가 이제는 主語에 속하는 限, 다시 생생하게 마음속에 그려진다는 것에 의거해서 한 綜合判斷이 分析判斷으로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熟考는 아무 것도 방해하지 않는다. 論議되고 있는 綜合判斷과 分析判斷의 區別에 있어서 重心은 “知識의 內容에 있다.”²⁶⁾ 主語와 述語의 結合은, 分析判斷에서는 同一律에 의거해서 思维되고 있지만, 綜合判斷에서는 同一律에 의해서 思维되지 않는다. 그것은, 判斷一般에 관해서 인식되고 있듯

22) a.a.O.S. 410.

23) a.a.O.S. 411.

24) a.a.O.S. 412, (B 141.) 25) a.a.O.S. 413.

26) a.a.O.S. 414.

이, 한 認識을 제시한다. 이 結合은 對象에 관한 어떤 무엇을 의미한다.²⁷⁾ 이 認識은 分析 判斷에서는 主語概念을 說明하는 것에서 存立한다. 이를테면 物體들에 延長이 속한다고 宣言하는 判斷에서 그러하다. ‘物體는 무겁다’와 같은 判斷이 綜合의 이라면, 이때에는 이 物體 또는 物體에, 物體의 개념에 들어 있지 않은 무개가 속한다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 물론 主語개념을 넘어서, 가지 않으면 안된다. 分析判斷에서 主語와 述語의 結合의 根據로서 所用되는 主語概念이 綜合判斷에서는 아무 것도 없다. 다시 말하면 述語가 主語 밖에서 定義에 적합하게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즉 綜合判斷에서는 直觀이 結合의 根據를 준다. 直觀에서 對象이 모색되어야 하고, 이 對象은 인식되어야 할 判斷言語의 개념에 대응한다. 그리고 “直觀에 의거해서 비로소 綜合的 判斷이 가능하다. 判斷이 認識이어야 하는 限, 綜合判斷의 唯一한 制約은 그러므로 直觀이다”.²⁸⁾ 그리고 “判斷에서 表象들의 統一의 根據로서의 概念이나, 아니면 直觀이나 하는 것은 分析判斷과 綜合判斷 사이의 本質的 區別이다”.²⁹⁾

判斷의 價値에 관해서는, 綜合判斷만이 진정한 認識을 表象한다는 것으로부터 분명해진다. 왜냐하면 直觀만이 對象을 주기 때문에 對象的 判斷은 直觀에만 의거하는 判斷들이다. 그러나 矛盾律의 基準에 의거하는 分析的 判斷은 對象의 世界에서의 檢證의 가능성 또는 不可能性에는 아무런 저촉 없이 물론 타당하다. 그러나 分析判斷은 이로인해서 對象의 世界에 대해 積極的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3. 先天的인 것에 관한 문제에도 오직 認識論的인 立場에서만 接近될 수 있다. 그러나 心理學的인 方法으로는 결코 接近될 수 없다. apriori와 aposteriori로 써는 물론 아무런 時間的 關係도 표지하지 않고, 論理的 關係, 즉 理性的 關係, 歸結에 대한 理由의 關係가 표지된다. das Prius는 論理的으로 上位의 것이고 das Posteriorius는 下位의 것이다. Riehl은 Aristoteles에 의거해서 또 das apriori를 “우리에 대해 먼저의 것과 區別해서 自然(本性)에 따라 먼저의 것”³⁰⁾으로서 說明한다. 우리의 認識에서 순수하게 파악 되는 部分은 우리에게 대해 먼저의 것에 의해서 표지된다.

그러므로 先天的 知識의 승인은 우리의 概念들의 先天的 根源을 승인하도록 결코 강요하지 않는다. 經驗的 概念들의 關係에 관한 知識도 先天的인 것일는지 모른다. 그래서 分析的 判斷들이 先天的 判斷처럼, 先天的 概念들을 說明하는 일에만 制限함으로써 概念들의 關係에 대해서만 妥當하게 된다는 것이 確證된다. 他面에 있어서 綜合的 判斷은 對象의 妥當을 要求하기 때문에, 先天的 規定과 綜合的 規定이 하나의 同一한 判斷에서는 排除되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우리의 思维에서는 綜合的 命題들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事物에 관

27) Vgl. a.a.O.S. 411.

28) a.a.O.S. 415.

29) a.a.O.S. 415.

30) a.a.O.S. 421.

해서 妥當하거나 또는 타당해야 할뿐 아니라 또 先天的인 命題도 우리의 思惟안에서 나타난다. 因果律은, 보통 分析的 判斷에서나 數學的 判斷들에서, 이 判斷들이 그들 자신에게 주어진 客觀에 관해서 要求되는, 그러한 概念的 必然性에 의해서 妥當해야 하며, 단지 여사 여사한 개별적 대상들에 대해서만 妥當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더우기 經驗一般의 對象들에 대해서 타당해야 한다. 純粹 自然科學의 原理안에는 個別的 特殊 事象을 넘어서 明白히 兩 矛盾的인 契機들의 한 統合이 가로놓여 있다.

이러한 모순에 차 있는듯이 보이는 事實에 直面해서, 綜合的 判斷의 가능성에 대한 물음이 파악된다면, 그 물음의 解決에 대한 展望과, 따라서 이와 비슷하게 모순에 찬 것으로서의 그 事實의 說明에 대한 展望이 明示된다. 概念으로 부터의 한 證명을 유도하는 것은 綜合的인 主張을 근거줄 수는 없다. 그리고 經驗的 證明이 先天的인 判斷에 公正하게 될 수도 없다.³¹⁾ 적어도 因果律에 있어서는 先天的인 것이 經驗의 진체에 이미 속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 이것을 도의시 하고서는 公正하게 될 수 없는 것이다.

Richl에 의하면 이 어려움이 批判的 計劃을 個別的 課題로 分節하게 한다. 先天的 綜合의 可能性的 물음 자체가 착수되기 전에 先天的 綜合判斷의 想定이 어떠한 아무런 直接的인 矛盾도 包含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한다. 綜合判斷에서의 主語와 述語의 結合은 主語 밑에 놓여있는 直觀에 의존한다. 上述한 矛盾的인 것으로 推定된 事實이 실에 있어서는 그 자체가 모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선 무엇보다도 먼저 直觀의 이러한 土臺가 經驗形成과 同一하지 않다는 것, 오히려 先天的 判斷에서의 主語와 述語의 結合의 根據를 줄 수 있는 한 先天的 直觀이 있다는 것이 지적되어야 한다.³²⁾ 이 證明이 이루어진다면 다음과 같은 批判의 本來的 問題의 해결로 進展할 수 있을 것이다.

a. 判斷의 規定은, 客觀이 事物이든, 또는 概念이든 客觀에 대한 關係를 判斷에 本質的인 것으로서 明示한다. 綜合的 判斷에서는 直觀이 對象에 대한 關係를 媒介한다. 先天的 綜合判斷에서는 經驗과는 관계 없이 獨自的으로 이 媒介가 발생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서 이 先天的 綜合判斷이 對象的으로 妥當해야 한다면, 先天的으로 意識統一의 根據를 形成하는 直觀도 客觀的 妥當性을 가지지 않으면 안된다.

b. 判斷의 原理로서의 述語들이 概念的 形態로 인식된다. 이 概念은 先天的 綜合判斷에서는 經驗에서 독립적이 아니면 안된다. 그러나 동시에 이 概念은, 主語와 述語의 結合이 종합적이어야 한다면, 直觀과의 關係속에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純粹直觀에 대한 概念的 必然的인 關係의 證明이 비로소 이 概念的 客觀的 妥當성과 함께 先天的 綜合判斷의 可能性을 定礎할 수 있다.

31) a.a.O.S. 417.

32) Vgl. a.a.O.S. 418.

33) Vgl. a.a.O.S. 428.

IV

先天的 綜合判斷의 可能性의 물음 안에는 “問題解決이 擇해야 할 길이 豫示되고 있다. 그러나 이 길을 물음으로부터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說明이 必要하다. 이번에는 물음의 契機를 顧慮해서가 아니라 물음에 대한 答의 方法을 고려해서 이다.³⁵⁾

Riehl은 誤解的인 파악을 決定的으로 拒絶한다. 이 誤解的인 把握에 의하면 Kant가 어떤 거짓된 必然的이고 普遍妥當的인 認識을 檢證하지 않고 批判的인 探求의 基礎에 놓았다는 것이다. 先天的 綜合判斷의 可能性의 制約이 規定되어야 한다면, 그 可能性이 前提되어서는 안된다. 물론 ‘Prolegomena’에서는 數學的 自然科學의 客觀的 妥當性的의 承認下에, 이것의 客觀적 타당성을 보증하는 制約을 탐구하는 한 研究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研究는 그 本來의 方式, 즉 分析的 方式에서 그 事實의 制約을 발견하기 위해 진제하지 않으면 안되는 事實의 確保 후에 비로소 나타난다. 그러므로 “‘Prolegomena’는 解說하는 것이지 基礎주는 것이 아니다.³⁶⁾ 다시 말하면 ‘Prolegomena’는 한 解說을 포함하는데, 이 解說은 해결되어야 할 것을 前提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反해 ‘批判’은 “純粹認識을 직접적으로 知識의 要素로부터 導出해야 한다.”³⁷⁾ 더우기 이 要素들은 內感과 外感의 形態로 있는 先天的 直觀과 純粹悟性概念이다. 思惟內의 悟性概念의 現存의 證명이 先天的 綜合判斷의 遂行을 위한 論據를 形成한다. 그리고 純粹悟性概念의 客觀的 妥當性的의 證명이 이 概念들의 認識價値를 正當화한다. 따라서 批判이 “모든 懷疑를 벗겨주는”³⁸⁾ 그러한 事實을 明白히 들추어 낸다면, 分析的 探求에 있어서 前提가 致命的일 수는 없다. 前提의 成果에 比하면 그 問題性은 전혀 슬기롭게 제시될 수 없다. 部分證明의 作業이 거기서 遂行되고 있는 認識의 要素들은, 서로 隔離되어서 探求의 對象으로 되지만, 이런 隔離態에서는 아무런 認識도 보증하지 못한다. 換言하면 直觀 없는 概念은 空虛하고, 概念 없는 直觀은 盲目的이다. 그러므로 批判的 計劃의 進行에서, 이미 問題를 해명할 必然性이 생긴다. 즉 概念的 계기와 直觀的 계기를 關聯시킬 必然性이 생긴 것이다. 이리하여 認識을 위해서 要求되는 認識의 要素들의 綜合을 Riehl은 ‘綜合的 方法’이라는 말로써 생각하고 있다. 問題의 해명과 관련해서 그는 綜合的 方法에 들어간다. 그러나 解決의 발걸음은 中心問題 안에서 豫示되고, 方法은 직접적으로 中心問題에 대한 個別問題의 관계로부터 생긴다. 方法的으로는 여기에 더

34) a.a.O.S. 409.

35) Vgl. a.a.O.S. 440ff.

36) a.a.O.S. 442.

37) a.a.O.S. 441.

38) a.a.O.S. 441.

이상 해야 할 것이 전혀 없다.

그러나 理性批判의 思想引導는 역시 계속적인 方法的 原理下에 있다는 것을 Riehl은 分明히 承認한다. 그의 著作을 總括짓는 總括에서 더우기 綜合的 方法에 關係, 이제 막 說明된 遂行들과 違背되는 方式으로 “Kant의 方法은 認識의 形式을 內容으로부터 分離시키는 데에서 存立한다고”³⁹⁾ 승인한다. 이 分離의 의미는 결국 方法論的 觀點에서도, 그리고 또 모든 分離는 여기서 結合에만 所用된다는 것이 制限的으로 附加되는 경우에도, 역시 승인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結合을 위해서 結合으로 이르는 個別的 契機들로부터 생기는, 그러한 制約들의 認識들을 分離가 準備하는 限, 分離의 意味는 승인될 수 있다. 따라서 理性批判의 方法이 分析的인, 限 그것의 根源이 論理學에서 보여진다. 왜냐하면 이 分離를 위한 “手段과 동시에 例를 論理學이 주기 때문이다.”⁴⁰⁾

論理學에는 二重的 觀點에서 ‘批判’에 대한 의미가 속한다. 우선 內容的으로는 Kant가 判斷論에서 “비록 缺點이 있기는 하지만 完成된 論理學者들의 研究를”⁴¹⁾ 진재할 수 있는 限, 그러하다. 그러나 Kant의 判斷論(判斷表는 度外視하고)은 Riehl에 의하면, ‘批判’이 이미 그 問題의 形式化에 의해서 인정한 前提들에 속하기 때문에, 論理學의 刺戟은 바로 여기서도 이미 影響받고 있다. 批判的 計劃 자체에 있어서는 데가 手段的으로만 妥當하다. 元來 Kant에 있어서 論理學의 方法的 기능은 重要하다. ‘形而上學的 分析’에서 論理學의 기능이 증명된다. 批判의 主要研究, 즉 先天的인 것의 客觀的 妥當性을 正當化하는 研究에 對해, 우선 단지 名義上의 先天的인 것의 先天的의 證明이 先行하지 않으면 안 된다. ‘形而上學的’이라는 用語는 이러한 關係에 있어서 Kant의 어떠한 形而上學的 脫線을 의미하지 않고, 이 탐구를 단지 순수하게 概念的인 것으로 특징지운다는 것을 뜻한다. 傳承된 形而上學에 對한 反對가, 理性批判이 순수하게 概念的인 探求에 있어서 分析에 制限된다는 點에서 有効하게 된다. 이러한 概念的 탐구는 그러나 ‘概念的 探求’나 ‘概念的 分析’과 同意가 아니고, 오히려 表象에 관한 分析이요, 다시 말하면 所與에 관한 分析이다. 이로써 Kant는 오직 表象을 媒介로 해서 “우리의 認識에는 事實的으로 先天的 要素들이 있고, 그것이 表象들이라는 것을”⁴²⁾ 確認할 수 있을 뿐이다. Kant의 處理는 여기서 “직접적으로 認識의 客觀을, 즉 경험에서의 概念과 概念의 對象을 목표하고, 그 標本이 論理學이요 또 外的 自然的 精密科學이다.”⁴³⁾ 論理學이 思惟된 것을 가장 단순한 關係로 分節하고, 그리하여 統一의 기능을 우리의 개념들 사이에서 확인 하듯이, ‘批判’의 形而上學的 分析은 경험 인식의 資料와 科學的 認識의 資料를 “그 要素들로 分解하고, 그것의 思惟必然的인 前提들

39) a.a.O.S. 573.

40) a.a.O.S. 573.

41) a.a.O.S. 369. (Prol. S. 323).

42) a.a.O.S. 444.

로還元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렇게 해서 導出된 것에서 그 안의 根源的인 것을 區別하고, 根據를 結果에서 區別한다.”⁴⁴⁾

이로써 分析의 方法論을 위해서는 綜合의 方法論에 대해서 보다는 사실적으로 더 이상 說明되지 않는다. 批判的 方法이 “理念的 認識要因과 經驗的 認識要因과의 原理的 分離와 事實的인 結合에서”⁴⁵⁾ 存立한다는 公式化를 고려할 때, 도대체 어떻게 해서 단지 그러한 分析과 綜合에서 存立하는 方法이 ‘批判的’인 것으로서 認定되는가? 하는 물음을 억제할 수가 없다. 실에 있어서 理性批判的 證明과정에서, 그리고 Riehl의 陳述에서도 分析과 綜合이 직접적으로 서로 관련하지 않는다. 綜合은 오히려 形而上學的 論究에서 基礎的이고 先天的인 것으로서 立證된 資料가, 空間과 時間 그리고 經驗의 分析에 관한 學說의 先驗的 探求에 의해서, 이 先天的 要素들의 對象의 妥當性이 立證된다고 하는 의미로, 加工된 후에야 비로소 나타난다. 批判의 이러한 극히 重要的 思想의 過程은 그러나 Riehl에 의해서 方法論的 觀點 一般이라고 하는 見地에서 評價되지 않는다. 이것은 ‘哲學的 批判主義의 歷史’라고 하는 다른 연관에서, 커다란 무게가 方法의 문제에 주어지는 것보다 더욱 더 理解가 안된다. ‘哲學的 批判主義의 歷史’의 第二篇의 第一章 全部가 Kant의 前批判期의 批判的 方法의 展開에 바쳐지고 있다. 물론 여기서 批判的 方法으로서 표지되는 것⁴⁶⁾은 ‘批判’의 外的 區分에 關여하고 本來的 問題에 지촉하지 않는다. 이 章의 第一節에서 ‘批判’의 方法의 의미가 論及되고 있지만, 이로써 分明히 未來의 哲學에 대한 ‘批判’의 成果의 의미는 생각되고 있다. 그러나 先驗的 方法의 意味가 생각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이 先驗的 方法論의 本質的 특징, 즉 先驗的 方法이, 先天的인 것으로서 證明되는 要素를 對象的 認識의 可能的 條件으로서 인식한다는 것이 顧慮되고 있지 않다.

V

課題의 形式化에서 정말로 解決의 길이 豫示되고 있다면, 이 해결을 가져다 줄 그 著作의 考察에는 모든 部分研究들이 간접적으로 또는 直接적으로 그 물음에 定位되고 있는 것으로서 밝혀지지 않으면 안된다. ‘批判’의 構成에 있어서 純粹直觀을 그 存在에 있어서 證明하는 것이 第一步를 이루고 있다. 이 證明에 의거해서 비로소 純粹直觀과 순수개념의 客觀的 妥當性이 證明될 수 있을 것이다. Kant는 이 證明을 空間과 時間의 形而上學的 해명에서 실현한다. 왜냐하면 한 경험적 證明은 여기서 아무 것도 證明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경험은 언제나 특수자를 대상으로 가진다. 非經驗的 直觀은 그러나 어떤 특수자가 아니라, 모

43) a.a.O. 446.

44) a.a.O. 444.

45) a.a.O. 265.

46) a.a.O. 265.

든 특수자에게 形式上으로 그 根抵에 있다. 또는 특수자의 根抵에 있어야 한다(이것은 후의 先驗的 解明이 증명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非經驗的 直觀이 一般的으로 存在한다는 것⁴⁷⁾ 이것은 오직 순수하게 개념적인 탐구에서 증명된다. 한 物體 내지는 事件의 表象에 관한 그러한 直觀이 感覺에 속하는 一切와 마찬가지로 悟性에 의해서 思惟된 것 一切를 통제한다면, “空間과 時間 자체가 남을 것이고, 순수한 抽象的인 關係로서가 아니라, 例컨대 實體와 같은 個別的 存在者처럼 남을 것이다.”⁴⁸⁾ 物體는 오직 空間에서만 表象되고 事件은 時間 안에서만 表象된다. 그러나 空間과 時間은 物體들이나 사건들의 充滿에 의해서 變形되지 않는다. 空間과 時間은 充滿되든 안되든 있는 그대로 머문다.” 이와 같은 事態가 의미하는 것은 空間과 時間이 그 자체에 있어서 先天的으로 考察된다는 것을 말한다.⁴⁹⁾

더 이상의 思想의 進展을 위한 이러한 定礎的인 인식이 획득된 후에 客觀에 관한 判斷이 綜合判斷이고, 이 綜合判斷에서는 客觀이 “우리의 思惟로부터는 獨立的으로 주어진다”⁵⁰⁾ 것이 想起된다. 우리의 表象들을 關連시켜 統一하는 根據가 判斷의 對象을 준다. 그런데 이 根據가 非經驗的 直觀이라면, 그 때에는 判斷에 속하는 客觀的 妥當性이 보증된다. 우선은 受容性의 制約으로서만 증명되는 直觀形式인 空間과 時間은 한 領域을 越지 않으면 안된다. 이 領域이 우리의 思惟와는 독립적으로 주어진 客觀에 관한 空間과 時間의 의미를 기초준다. 이 領域의 마지막 部分에서 先驗的 解明은, 時空이 一般으로 對象이 그 아래서 주어질 수 있는 形式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이러한 限 時空은 客觀的 의미를 획득한다. 왜냐하면 直觀的으로 주어진 것만이 綜合的 判斷의 對象으로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 對象이 주어져 있다는 것은 아직 判斷되고 있지는 않는 것이다. 단지 주어졌을 뿐 綜合되지도 判定되지도 않은 現象은 어디에서도 제시될 수 없다. 그런 現象은 感官에 의해서 表象되지만, 認識過程에서는 秩序에 의거해서 비로소 顯著해 진다. 現象을 自己의 것으로 만드는 意識이 現象 안에서 그 秩序를 세운다. 그러므로 단순한 現象은 客觀을 規定하는 意識의 作用에 대해서 分離되어 있어서는 안된다. 비록 우리가 두 要因을 方法的인 의도에서, 認識過程에서의 各 要因의 役割을 規定하기 위해, 區別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할지라도, 그러하다. “經驗에서 獨立的인 것으로 생각되는 개념들”⁵¹⁾에서는 意識이 規定機能을 발휘한다. 왜냐하면 判斷의 原理가 概念의 형태로 있는 述語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先天的 判斷에서는 이 概念도 마찬가지로 先天的의라야 한다. 先天的 綜合判斷의 가능성의 定礎는 따라서 이런 개념들의 客觀的 妥當性을 두번째로 確保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이 概念의 分

47) Riehl은 純粹認識의 사실(S. 443)과 발생(S. 444)에 관해서 純粹直觀 자체가, 순수개념적 증명을 불가피하게 유발하는 그림象(Bild)이 아님을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Vgl. a.a.O.S. 491.

48) a.a.O. 447.

49) a.a.O. 447.

50) a.a.O. 429.

51) a.a.O. 477.

析論의 課題이다. 이 分析論의 基礎는 空間과 時間에 관한 學說과 對應한다. Kant는 “概念들의 事實적인 發生의 證明을 먼저 引導하고나 다음에 概念들의 合法性, 즉 경험의 客觀에 관한 概念들의 妥當性을 證호한다.”⁵²⁾ 최초의 證明은 그러므로 表象들간의 統一機能들의 先天性에 해당한다. 이 證明은 동시에 이 原理들의 客觀的 妥當性에 뒤따르는 인식에 質料를 提供하고, 이제 이 質料에 의해서 비로소 이 質料가 全體로서나 部分的으로 경험에서 빌려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 확신하다. 體系의으로, 즉 原理에 따라서 범주들의 先天的 存在가 展開되지 않으면 안된다. Kant는 이 原理를, 경험의 기초개념들의 完全한 範圍를 발견함으로써 찾았다. 이러한 범주들은 感性的의 이다고, 判斷을 위한 二 論理的의 기능과 함께, 그 源泉의 發見이 判斷의 形式에서 由來한다.⁵³⁾ 이 同一한 論理的의 기능이 判斷形式으로서 相異한 表象들에 統一을 주고, 範疇로서 直觀의 對象을 고려해서 表象들의 結合을 수행한다. 순수오성개념은, 비록 이 개념들이 아무런 경험적 內容을 가질 수 없고 “先天的으로 意識안에 주어진 內容을 가질 뿐이지만, 진적으로 內容이 공허하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先天的으로 對象에 관해서 對象의 直觀의 形式만을 인식한다. 그래서 “개념의 非經驗的 內容은 空間과 時間의 圖式일 뿐이다.”⁵⁴⁾ 그러므로 圖式에, 따라서 圖式에 나타나는 事物들에 先驗的 論理學이 形式論理學의 概念을 관련시킨다.

물론 中心的인 先天的 綜合의 가능성의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러한 관련의 合法性이 또 必要하다. 그래서 範疇의 先驗的 演繹이 要求된다. “印象의 多樣을 하나의 一定한 直觀으로, 즉 對象에 관련된 直觀으로 昇格시키기 위해서는 思惟의 기능이 必要하다는 것”⁵⁵⁾ 을 “批判”이 지적하지 않으면 안된다. 직관적으로 주어진 根據와 관련해서 意識의 統一이 실현된다. 그런데 이 직관적으로 주어진 근거는 그 단순한 所與性이 先驗的 해명에 의해 客觀的인 것으로 證明되고 있다. 그러나 所與의 客觀性은 아직 認識의 對象의 객관성이 아니다. 인식의 대상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直觀的으로 주어진 근거가 自己統一的인 意識에 대해서만, 즉 統一을 수행하는 기능에 의해서만 대상으로 된다는 것이 證示되어야 한다. 이런 證明이 “批判”의 第二版에서 비로소 決定的으로, 初版에 비해 方法的으로 改善된 과학에 도달했다. 第二版에서 비로소 心理學的인 識論이 감소되고 있고, 이로인해서 批判的 證明과정의 가능하고, 동시에 確實해 졌다. 對象의 개념안에서는 所與直觀의 多樣이 통합되고 있다. 그러나 “모든 統合에는 形式으로서, 意識의 통일이 根抵에 있다.”⁵⁶⁾ 그래서 “이 意識의 통일은 한 對象에 대한 表象들의 關聯의 根本形式이다.”⁵⁷⁾ 이 意識의 統一에

52) a.a.O. 477.

53) Vgl. a.a.O. 479.

54) a.a.O. 478.

55) a.a.O. 497.

56) a.a.O. 514f. (B.S. 137).

57) a.a.O.S. 514.

대해 모든 對象的인 表象이 관련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경험적인 自己意識도 이 의식의 통일에 의거해서만 비로소 가능하다. 모든 對象의 表象에 관한 이 必然性에서 근원적인 통일이 自己意識의 객관적 통일로서 표지될 수 있다. 즉 根源的 統一이 現象의 다양을 客觀의 개념으로 統合하는 先驗的 根據이다. 이 통합의 수레는 判斷作用이고 이 判斷作用이 상이한 表象을 의식의 통일로 초래하고, 그리고 이러한 表象結合의 客觀的 妥當性을 주장한다. 따라서 自己意識의 객관적 통일의 對象的 의미가 判斷의 悟性活動을 통해서 現象으로 伸張한다.

그런데 形而上學的 영역은 判斷에서의 논리적 기능과 범주에서의 논리적 기능의 同一性을 증명했다. 판단에서의 논리적 기능이 객관적 타당성을 주듯이, 이 기능은 또 직관을 객관으로 規定함에 있어서도 객관적 타당성을 自己의 權利에 속하는 것으로서 요구한다. 自己意識의 客觀的 統一이, 범주의 妥當性의 要求와 같이 判斷形式의 妥當性의 要求도 正當化한다. “그래서 直觀의 多樣은 범주에 종속한다.”⁵⁸⁾ 오직 이러한 論理的 기능들의 集中的 수행에 의해서만 多樣이 가능적 認識의 質料로 된다. 他面에서는 直觀에 대한 必然的 關係에 의거해서 비로소 範疇들은 不定的 空虛한 論理的 기능 이상의 것, 즉 認識概念이다. “直觀形式에서의 특수 종합에 의해서 범주는 認識을 만들고, 더우기 이 形式들이 覺知의 形式들, 즉 客觀을 통해서 作用하는 印象들의 概括의 形式이기 때문이다.”⁵⁹⁾ 그러므로 中心的인 先天的 綜合의 可能性的 물음은 概念의 分析論에서, 범주의 對象의 타당성을 묻는 그 部分물음에 대한 答을 갖는다. 즉 自己意識의 客觀的 統一은, 直觀形式안에 주어지고 있는 모든 것에서 判斷을 위한 論理的 기능을 媒介해서 表明된다.

現象안에 論理的 契機들이 미물고 있다는 것에 대한 洞察에 의해서, 이제 批判的 意圖의 더이상의 前進을 위한 극히 重要한 經驗의 개념이 획득된다. ‘現象’이 ‘純粹悟性概念’에 관한 學說을 위해 原理를 주었다면, 이제는 ‘經驗’이라는 概念이 “경험의 原則들을 위한 原理로서 소용된다. 즉 經驗자체의 普遍的 先天的으로 認識가능한 法則性을 言表하는 判斷들에 대해서 소용된다.”⁶⁰⁾ ‘批判’에서는 先天的 概念과 原則論사이에 ‘圖式의 章’이 媒介한다. “여기서 一群의 中間形象이 導入되고, 이 中間形象들은 概念的 表象의 性質과 直觀的 表象의 性質을 함께 가지는 圖式들이다.”⁶¹⁾ 圖式에서는 時間이——물론 이 時間은 모든 現象의 形式인 限, 空間처럼 단지 外的 形式에 그치지 않는다——思惟의 統一概念에 의해서 規定된다. 이 規定이 범주에 경험과 모든 경험의 對象들에 대한 適用可能性을 준다. 경험 대상들에 대한 適用可能性을 根據로 해서 순수한 認識概念들이 判斷들에 대한 原理로 된다. 이 原理들이 비로소 學이라는 의미의 經驗을 가능하게 한다. 말하자면 原理들의 固有한 妥

58) a.a.O.S. 518.

59) a.a.O.S. 519.

60) a.a.O. S. 524.

61) a.a.O.S. 525.

當性이, 概念의 分析論에서 획득된 경험의 개념을 보증하는 것과 같다. "經驗이라는 概念은 先天的 綜合的 認識의 原理이다."⁶²⁾ 왜냐하면 先天的 認識과 客觀과의 合致는, 先天的 認識이 "概念의 統一을 위해 必要한 것,"⁶³⁾ 그리고 이것만을 包含하고 있다는 것에 依據한다. 그러므로 先天的 綜合的 認識은 모든 가능적 경험의 全體의 內部에 깔려 있고, 그리고 "모든 가능적 경험에 대한 一般的인 關係"⁶⁴⁾에서 成立한다. Riehl에 있어서는 "경험의 原則들에 관한 敎說과 證明"⁶⁵⁾의 章이 가능적 경험에 해당한다. 이 論說의 體系的 位置는 論理學의 모범에 따라 規定되고 있다. 즉 論理學의 要綱에 따라 '批判'이 構成되고 있다. 이 要綱은 概念論과 관련해서 判斷論을 要求하고, 그리고 判斷論과 연결해서 推理論을 要求한다. 이것만으로는 물론 原則들의 證明을 위해 아직 아무 것도 획득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아마도 이 原則들의 證明에 관해서는 "그러한 단순한 개념으로부터의 證明에 대해서는, 綜合的이라고 하는 이 判斷의 本性이 相反된다. 그러나 순수한 경험으로부터 된 證明에 있어서도 이러한 判斷들은 마찬가지로 거의 생각될 수 없다. 그러한 證明에 대해서는 이 判斷들의 先天的이라는 性格이 矛盾한다."⁶⁶⁾ 이 判斷들의 '經驗의 概念과의 聯關'의 證明은, 이 경험의 개념이, 개념의 分析論에 의해서 모든 우리의 인식 作用에 대한 마지막 法廷으로서 證明된 후에, 獨占적으로 이 先天的 綜合的 命題들의 合法化로서 妥當하지 않으면 안된다.

概念의 分析論은 물론 現象의 對象性도 이미 證明했다. 그러나 경험을 만드는 主觀의 그 때 그때의 상태로부터의 경험인식의 독립성, 보편타당성과 必然性은 아직 現象의 對象性을 보증할 수 없었다. 이를 위해서는 現象解明의 規則이 必要하다. 그리고 이 規則들이 바로 原則들을 의미한다.⁶⁷⁾ 原則들은 범주에 의해서 現象의 規定을 規制한다. 이렇게 해서 미로 소 原則은 思惟에 對象內的 根抵를 마련해 준다. 이 根抵를 통해서 思惟는 認識으로 될 수 있다. 따라서 對象의 根抵에 의해서 경험의 개별적 대상들의 보편타당적이고 必然的인 規定이 思惟에 의해서 가능하다.

問題의 해명에 있어서 數學, 純粹自然科學과 形而上學은 認識의 分析의 基體로서 표지된다. 先天的 綜合의 가능성의 물음에 대한 批判의 대답은 따라서 또 이 세계 學의 可能性에 대해서도 決定하지 않으면 안된다. 실로 數學은 자신이 제공할 客觀들의 總括로 그 成果의 타당 영역을 制限함으로써, 空間의 先驗的 解明에서 벌써 그의 演繹을 경험했다. 그러나 理

62) a.a.O.S. 527.

63) Riehl에 의하면, 圖式論의 章은 不必要하다. 즉 보편적 개념과 個別的 直觀사이의 조정되어서는 안된다. 一般 개념의 근저에 있는 思惟 기능은, 이 기능에 의해서 對象으로 만들어진 印象들에 관해서만 概관적 타당성을 가질뿐이다. 오히려 概念자체가 Schema이고, 논리적 보편성과 감성적 個別性 사이를 매개하지 않는 것과 같이, 논리적 기능과 直觀의 所與 사이도 매개하지 않는다. Vgl. A. Riehl, a.a.O.S. 524f.

64) a.a.O. 528. (A. 146; B 185).

65) a.a.O. 528ff.

66) a.a.O.S. 418.

67) Vgl. a.a.O.S. 532.

性批判의 目標은, 必然的 成果에 도달하는 學問에서 唯一한 學問으로서의 數學의 保證보다도 더 멀리에 설정되고 있다. 그래서 先驗의 分析論의 해명은, 先驗의 感性論에서 그 固有한 전문영역으로 보장된 數學에 대해서도 重要하다. 先驗의 分析論의 해명은 一定한 타당영역으로의 制限 없이, 認識의 一般的인 定礎를 수행한다. 自然科學의 定礎는 그러므로 그 原理的인 部分에 있어서 原則論에서 비로소 完結되듯이, 數學의 定礎도 그 原理的 部分에 있어서 數學의 原則들에 관한 學說에서 비로소 完結되는 限, 數學의 이 原則部分도 不可缺하다. 이러한 사실은 Kant의 다음의 발견, 즉 經驗一般의 原則은, 自然科學의 모든 研究에서 制定되는 原理들과 一致하고, 그리고 自然科學이 自然科學的 對象들의 “變化와 現存의 一般的 法則性을 요청하는 原理와 一致한다는 것의 발견의 의미를 밝힌다.”⁶⁸⁾ 이와 같은 발견의 후에 Kant는 “實體의 持續性的 命題, 變化의 因果性的 命題, 共同性和 相互性的 命題를 形式化했다. 現象의 現存의 規定의 原則, 이것 자체가 이 現存者의 경험을 가능하게 한다.”⁶⁹⁾ 이리하여 마침내 그는 ‘經驗的인 것의 法則’들에 관한 定義에 따라서 이 경험적인 것의 法則이,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原則들과 同一하다는 것을 지적한다. Kant 以前에는 경험을 보편적 필연적으로 타당하는 인식으로서 인정하기 위해 必須不可缺한 前提들의 증명할 수 없음을 고려해서, 그런 前提를 要請으로서 설명하고 말았다. 그리고 언제나 이런 前提를 가지고 研究해나가야 하는 自然科學에 있어서는 이런 前提의 妥當性的 증명도 이룰 수는 없었다. 自然科學이 學의 研究 자체에서 계속 경험하는 確證이 證明으로서는 妥當할 수 없는 限, 그러했다. 이러한 증명은 모든 종합적 인식의 최고원리로서의 경험 자체의 개념이 얻어진 후에야 비로소 가능하게 되었다. 經驗의 原則에 관한 節로써 ‘理性批判’의 基礎와 構成에 관한 Riehl의 敘述은 끝맺는다.

VI

Alois Riehl은 多樣하게 Kant의 문제가 단지 認識論的 問題일 뿐이라고 강조한다. ‘批判’의 물음이 인식에 向한 것이지 實存에 向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Riehl은 物自體의 存在方式에 생생한 關心을 갖는다. 그러므로 物自體는 이미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질 것이다. 왜냐하면 批判的 體系에서는 認識에 대한 물음이 對象性에 대한 물음으로부터 分離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對象性的 物음에서는 物自體의 問題에 대한 展望이 明白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Riehl은 對象의 認識과 認識의 對象을 分離시킨다. 그리고 여기서 實證科學의 가능성의 問題가 생각되고 있다. 이 實證科學의 素材가 物自體에서 豫示된다. 이 觀念論的 해석에서 Riehl은 素材의 發散을 본다. Kant가 ‘觀念論論駁’

68) a.a.O.S. 529.

69) a.a.O.S. 530f.(A215, B262).

에서 對抗했던 그런 觀念論의 方式으로 Riehl은 素材의 發散을 바란다. 主로 “現象, 物自體 그리고 本體”의 章⁷⁰⁾에서 그가 여기서 自然科學의 素材의 對象性에 주는 保證에서 인식과 대상의 上述한 分離가 作用하고 있다. Riehl에 있어서는 認識과 對象의 相關概念 사이에 第三의 契機인 現象이 끼어 든다. 現象은 물론 나의 對象이지만, 그러나 對象자체, 事物 자체가 아니다. ‘現象’은 그 안에서 物自體가 촉발자로 생각되고, 自我는 촉발되는 것으로서 사유되는 그런 관계를 말한다. 그래서 “現象은 主觀에 대한 物自體(Ding selbst)의 관계를 의미한다.”⁷¹⁾ 그리고 人間的 認識의 對象을 表示한다. 우리는 물론 자신을 인식할 수는 없다. 그러나 現象의 思想 안에는 거기서 現象하는 것에 대한 指示가 있다. 그리고 直觀形式과 悟性形式의 思想안에는 이 形式안으로 들어오는 質料에 대한 指示가 있다. 그리고 그 質料는 물론 現實的이다. 質料는 存在를 가진다.” ‘存在’(Existenz)라는 用語의 엄밀한 의미에 있어서.”⁷²⁾ Riehl은 이와같이 認識에서 인식작용만을 본다. 그러나 對象法則性的 總괄개념을 보지않기 때문에, 그는 認識에 대립해서 인식에 異質的인 物自體를 附加하지 않을 수 없다.

事物들 자체가, 그것에 따라 “現象들을 規定하는 根據들로서 해석된다면, 그러면 이 文句는 물론 文字에 너무 구에되는 것이 된다. 그러나 이 文句는 완전히 다른 精神에서 발생했다. 그 精神은 한편에서는 認識과 實在存在의 定礎關係를 서로 떼어 놓고, 다시말하면 그가 관련시켜야 할 곳에서 分離시키고, 他面에 있어서는 存在와 認識을 하나의 存在論의 分野안으로 끌어들인다. 그가 認識과 存在 사이에 因果關係를 指示함으로써 그가 區別해야 할 곳에서는 同等하게 한다. 區別된 契機들의 그러한 區別과 關係만이 批判的 의미의 定礎이다. 왜냐하면 批判的 의미의 定礎만이, 事物들 자체를 경험대상의 根據로서 要求할 때, 그것이 다루는 것에 관해서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根據들이 原因들로서 사유된다면, 즉 어떤 인식할 수 없는 나라로부터, 存在하는 實體들에 이쪽으로 영향을 미쳐야 하는 그런 原因으로서 思惟된다면, 그러면 認識論도 결국은 x 에, 즉 한 커다란 未知의 것에——이것을 認識의 進展에서도(漸近的으로도) 規定할 수 없다——의존한다. 그러나 이때에는 제시된 學說은 對象理論으로서 뿐만 아니라, 認識論으로서도 不充分하다. 왜냐하면 이들의 中心概念인 ‘現象’이란 개념의 物自體에 대한 相關關係의 必要性에 있어서(物自體에 의한 現象들의 因果作用에 관해서와 같이, 物自體의 現實성에 관한) 一定한 理論들의 必然성이 함께 定立되고 있고, 그리고 이 理論들의 合法則性은 再檢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Riehl의 解釋이 完全히 拒否하는 點은, 따라서 經驗의 對象性的 定礎이요, 嚴密히 批判的 의미에서의 經驗의 對象性的 定礎이다.

70) a.a.O.S. 552ff.

71) a.a.O.S. 554.

72) a.a.OS. 552.

“Alois Riehls Kantinterpretation”

《Auszug》 von Jin Jeong

Nach der Meinung A. Riehls ist die Frage der Vernunftkritik Kants eine Frage nach der Erkenntnis. Jedoch erfordert sie zu ihrer Beantwortung keine vollständige “Theorie der menschlichen Erkenntnis.” Die Aufgabe ist beschränkt auf die Erkenntnis a priori; das viele “Empirische und Sinnliche” bleibt außer Betracht. Die für die ganze Untersuchung maßgebliche Formulierung lautet: Wie sind synthetische Urteile apriori möglich? Und zwar zielt die Möglichkeitsfrage nicht auf die zu ermöglichende Wirklichkeit, sondern auf die zu begründende objektive Gültigkeit solcher Urteile.

Alois Riehl betont mehrfach, das Problem Kants sei ein lediglich erkenntnistheoretisches Problem. Auf die Erkenntnis gehe die kritische Frage, nicht auf die Existenz. Dennoch ist der Denker an der Seinsweise des Dinges an sich lebhaft interessiert. Das könnte schon darum verständlich scheinen, weil sich im kritischen System die Frage nach der Erkenntnis nicht von der nach der Gegenständlichkeit trennen läßt, und weil bei dieser der Ausblick auf das Ding-an-sich Problem nahe liegt. Tatsächlich reißt Riehl aber Erkenntnis des Gegenstandes und Gegenstand der Erkenntnis in einer Weise auseinander, die diese Erklärung nicht zuläßt. Vielmehr ist hier an das Problem zudenken, in dessen Erörterung Riehl überhaupt zur kritischen Fragestellung geführt wird: An das der Möglichkeit der positiven Wissenschaften.

Der Punkt, an dem Riehls Interpretation völlig versagt, ist demnach die Begründung der Erfahrungsgegenständlichkeit, ihre Begründung nämlich im streng kritischen Sinne.